

대구, 오늘(3월 27일) 벚꽃 개화

- 작년보다 6일 늦게, 평년보다 2일 일찍 개화 -

대구지방기상청(청장 함동주)은 올해 대구 벚꽃이 3월 27일 개화했다고 발표했다. 이는 작년보다 6일 늦고, 평년보다 2일 빨랐다.

벚꽃 개화는 대구지방기상청 내 관측 표준목을 기준으로, 표준목에서 임의의 한 가지에 세 송이 이상 꽃이 활짝 피었을 때를 ‘개화’로 관측한다.

【대구 벚꽃 개화·만발 현황】

구분	2024년	2023년	평년 (1991~2020년)
벚꽃 개화	3.27.	3.21.	3.29.
벚꽃 만발	-	3.25.	4.2.

벚꽃은 3월 기온과 일조시간의 영향을 받으며 통상적으로 개화 후 약 일주일 이후 활짝 핀다.

기상청은 날씨누리(www.weather.go.kr)를 통해 전국의 주요 벚꽃, 철쭉 군락 단지 개화 현황을 제공하고 있다. (테마날씨> 계절관측> 봄꽃개화현황)

붙임 벚꽃 개화 사진

담당 부서	대구지방기상청 관측과	책임자	과 장	이용태 (053-282-0140)
		담당자	주무관	이명숙 (053-282-0143)

붙임

벚꽃 개화 사진

